



새 외국인 투수 제임스 네일과 월 크로우로 마운드를 새로 구성한 KIA 타이거즈가 호주 캔버라 스프링캠프에서 '대화'로 전력을 키우고 있다.



“젊은 투수들도 할 말은 해야 마운드 강해진다”



KIA 타이거즈 스프링 캠프

호주 캔버라=김여울 기자 YouTube 광주일보

정재훈 투수 코치 '배움'의 캠프 선수마다 필요한 것 찾는 게 핵심 코치-선수간 신뢰로 전력 극대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다. 승리를 위해 KIA 타이거즈가 '배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올 시즌 KIA를 주목하는 이들이 많다. 지난 시즌 아쉽게 5강에서 탈락했지만 타이거즈 특유의 화끈한 타선을 보여줬고, 무엇보다 '젊은 마운드'가 든든하다. 4년 차 이외리와 2년 차 윤영철로 꾸려진 선발진, 최지민이라는 3년 차 투수 필승조도 있다. 5년 차 마무리 정해영까지 현재이자 미래인 '젊은 마운드'에 KBO리그를 대표하는 투수 양현종의 노련함까지 아우러졌다. 지난 2년 KIA를 이끌었던 외국인 투수들의 움직임도 좋다. 노련하게 페이스를 올리고 있는 월 크로우, 캠프 초반 흐름에서는 제임스 네일이 더 시선이

갈 정도로 두 선수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무엇보다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면서 알아서 마운드가 움직이고 성장하고 있다. 문제는 이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다. KIA는 '배움'으로 전력 극대화를 노리고 있다. 지난겨울 KIA는 드라이브라인에 젊은 투수들을 파견해 '데이터 야구'에 속도를 냈다. 새로 팀에 가세한 정재훈, 이동걸 투수 코치도 이들과 동행해야 구 시야를 넓혔다. 구슬을 꿰어야 하는 정재훈 코치는 "확실히 개념이 정리가 됐다"고 이야기한다. 정 코치는 "선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나를 찾는 게 핵심이다. 선수한테 맞는 것, 부족한 것 등을 찾아내는 기술이 뛰어난 것 같다"며 "내가 정답은

아니다. 정답은 없다. 선수들이 찾아야 되는 것이다. 결국은 받아들이는 선수가 훨씬 더 중요하다. 드라이브라인 갔다 온 선수들 보면 배운 것도 좋지 않나 선수 생활하면서 어떤 루틴으로 몸관리를 하고 훈련을 해야 할지, 방향성이 생긴 것 자체만으로 큰 수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코치도 공부해야 한다"고 이야기해 온 그는 드라이브라인에서 학생이 돼 또 다른 공부를 했다. 그리고 이제는 선수들과 서로 배우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정 코치는 "다양한 매뉴얼 옵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선수 파악이 중요하다. 그 공부가 중요하다. 이 선수는 뭐가 필요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받아들이는지 그런 스킬도 중요하다. 선수 파악하는 공부 현장에서 중요하다"며 "내가 100가지를 알아도 선수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미 없다. 시즌 들어가면 마냥 좋을 수는 없다. 얼굴 붉힐 일도 생길 것이다. 신뢰와 유대관계가 있으면 감정이 확실할 일이 없을 것이다"고 서로를 알아가고 있는 과정과 그 의미를 설명했다. 신뢰를 쌓고 이를 바탕으로 전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 코치는 '대화'를 강조한다.

정 코치는 "선수들에게 이야기를 하라고 주문한다. 선수들도 아닌 것은 이야기를 해줘야 나도 공부 된다. 서로 알아가야 하는 것이다"며 "바뀌는 코치마다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야 야구를 잘하는지 알아가는 게 열심히 하는 것이다. 코치마다, 지도자마다 스타일이 다르다. 많이 던져라 하면 많이 던지고, 웨이트 많이 해라 하면 웨이트 많이 하고, 러닝 많이 뛰어야 하면 러닝 많이 뛰고 이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다. 자기한테 필요한 것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걱정될 정도로 선수들이 너무 착하고 순하다. 지도자 하기에는 그런 선수가 많은 게 편하지만 이겨야 하는 집단이다. 강한 면도 있어야 하고, 반기까지는 아니라도 '코치님 저는 이래요'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야 서로 발전하고 팀이 강해진다"며 "개개인이 강해져야 팀이 강해진다. 착하고 순하고 받아들이 준비는 다 돼있는 것 같다. 받아들이는 것을 표출하는 방법을 선수들이 조금 더 터득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마무리로 활약했던 정 코치, 오히려 눈길은 선발 쪽에 쏠린다.

정 코치는 "(마무리인) 해영이한테는 말이 잘 나 온다. 서로 교감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과정이 더 잘 풀린다. 불펜 쪽이 말하기 편하지만 더 신경 쓰는 부분은 선발이다. 내가 많이 못해본 분야니까 빨리 성장과 성격을 알아야 한다. 많은 선발을 겪어봤지만 결국은 다들 다르니까 그래서 선발들과 대화를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많은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는 KIA의 호주 캔버라 스프링캠프. 정 코치는 '기분 좋은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정 코치는 "마무리캠프, 미국도 갔다왔지만 처음 본 선수들도 있고 분위기도 다르다. 아무래도 여기는 경쟁의 시작점이다. 올 시즌 시작점이라 분위기도 다르고 선수들 마음가짐도 다를 것이다. 본격적으로 경기를 해봐야 선수들의 능력을 알겠지만 다들 너무나 준비를 잘 해왔다. 누구 하나가 아니라 전원 만족스럽다"며 "초반부터 보여줘야 하는 선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선수도 있다. 그런 부분 잘 신경 쓰면서 시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글=시진=wool@kwangju.co.kr



2024 카타르 도하 국제수영연맹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나선 대한민국 수영 국가대표 황선우(왼쪽)와 김우민이 19일 오후 인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뒤 인터뷰를 하며 미소를 짓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수영 '세계 8위' ...파리서도 일 낸다

세계수영선수권, 금 2·은 1·동 2 톱코스 대회 '역대 최고 성적'

한국 수영이 2024 카타르 도하 국제수영연맹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역대 톱코스(50m) 대회 사상 최고 순위로 마무리했다. 한국은 19일 모든 대회 일정을 마친 도하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의 성적으로 최종 8위에 올랐다. 한국이 올림픽 정규 규격인 톱코스 세계선수권대회에서 10위 안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전 최고 순위는 2007년 멜버른 대회의 13위(금1, 동1)였다. 당시 박태환(34)이 남자 자유형 400m에서 금메

달, 자유형 200m에서 동메달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 한국은 '황금 세대'를 앞세워 역대 대회 가운데 가장 많은 5개의 메달을 휩쓸었다. 경영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 다이빙에서 동메달 2개가 나왔다. 김우민(22·강원도청)이 남자 자유형 400m 우승을 차지하며 한국에 13년 만의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을 선사했고, 황선우(20·강원도청)가 남자 자유형 200m에서 금빛 질주를 이어갔다. 김우민과 황선우, 이호준(23·제주시청), 양재훈(25·강원도청), 이우연(23·고양시청)이 힘을 합친 계영 800m에서는 은메달을 목에 걸어 세계선수권대회 사상 최초의 단체전 메달 획득에 성공했다. 2019년 광주 대회 동메달리스트 김수지(25·울산시청)는 이번 대회 여자 다이빙 3m 스프링보드

에서 동메달 연기를 펼쳤고, 이재경(24·광주시체육회)과 호흡을 맞춘 혼성 싱크로 3m 스프링보드에서 동메달을 합작했다. 중국은 이번 대회 다이빙에서 9개, 아티스틱 스 위밍과 경영에서 각각 7개의 금메달을 획득해 총 금메달 23개와 은메달 8개, 동메달 2개로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미국(금9, 은6, 동8)과 호주(금7, 은12, 동5)가 그 뒤를 이었다. 일본은 금메달 1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로 공동 17위에 자리했고, 다이빙에서만 은메달 2개를 딴 북한은 25위로 대회를 마쳤다. 개막 전부터 17일 동안 '물의 축제'를 벌인 선수들은 7월에 열리는 2024 파리 올림픽에서 경쟁을 이어간다. /연합뉴스

광주FC 2024 멤버십·티켓북 출시

광주FC가 2024 멤버십·티켓북(사진)을 출시했다. 멤버십카드는 선예매 권한, 홈경기 이벤트 우선 참여 혜택, 2024 선수단 사인볼 교환권 패키지로 구성됐다. 가격은 성인 W석 30만원, 성인 E/N석 26만원, 청소년 W석 22만원, 청소년 E/N석 18만원이다. 멤버십카드 소지자는 선예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2라운드 강원전부터 기존 예매일 보다 2일 먼저 예매할 수 있다. 단 1경기에서 최대 4장까지만 선예매가 가능하다. 종이형인 티켓북은 총 20장으로 구성됐으며, 지인에게 간편하게 선물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성인W석, 성인E/N석, 청소년W석, 청소년E/N석으로 세분화했으며, 티켓북 구매자는 사전 예매를 통해 사용해야 한다. 가격은 W석의 경우 성인권과 청소년권이 각각 27만원과 21만원, E/N석은 각각 22만5000원과 16만5000원이다. 입장권 대비 약 25%의



할인율이 적용됐다. 멤버십과 티켓북은 광주 구단 공식 홈페이지와 티켓링크에서 구매할 수 있다.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배송되며, 23일 이후 구매한 멤버십과 티켓북은 매주 수요일에 일괄 발송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LA 오타니 시범경기 개막전 결장...김하성·고우석과 대결 무산

미국프로야구(MLB)에서 활약 중인 일본인 스타 오타니 쇼헤이(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올해 시범경기 개막전에 결장한다. 데이브 로버츠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감독은 19일 미국 애리조나주 글렌데일 कैम्플렉스 경기장에서 스프링캠프 훈련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23일 열리는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시범경기 개막전에는 오타니가 출전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샌디에이고 소속의 고우석과 투타 대결은 물론 김하성과의 타격 경쟁도 추후로 미뤄졌다. 지난해 9월 팔꿈치 인대 접합수술을 받은 오타니는 지난 13일 첫 야외 타격 훈련에서 큰진행 홈

런 타구를 잇달아 날리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 정상적으로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몸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로버츠 감독은 "오타니가 재할에 전력을 기울이면서 회복이 일정보다 빠른 상황"이라고 밝혔으나 "언제 경기에 나설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타니는 오는 3월 20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샌디에이고와 정규시즌 개막전을 목표로 컨디션 조절 중인 상태다. 지난해 12월 역대 최고액인 7억달러(약 9255억원)에 10년 계약을 맺은 오타니는 '투타 겸업'으로 자신의 몸값을 크게 끌어올렸으나 올해는 팔꿈치 수술 여파로 타자로만 출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